



별은 너에게로

• 박노해

어두운 길을 걷다가
빛나는 별 하나 없다고
절망하지 말아라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구름 때문이 아니다
불은 때문이 아니다

지금까지 네가 본 별들은
수억 광년 전에 출발한 빛

길없는 어둠을 걷다가
별의 지도마저 없다고
주저앉지 말아라

가장 빛나는 별은 지금
간절하게 길을 찾는 너에게로
빛의 속도로 달려오고 있으니



대외협력
3F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대학부예배 (오후) 12:30
청년부 (오후) 12:30
교회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HISTORY
Café

정성균 선교관(왼쪽)과 김기수 기념관(오른쪽)
사진: 허윤기 연구원(GMLP 사업단)



Contents

06 커버 스토리

- ❶ 개교 60주년 기념 행사
- ❷ 개교 60주년 이모저모
- ❸ 휴먼 스토리

12 스페셜 에디션

한남대학교 제 16대 이덕훈 신임 총장을 만나다

- ❶ 취임 소감 및 계획, 비전
- ❷ 취임행사 및 활동사항

16 인터뷰

- ❶ 2016 연구업적 우수교원 - 허근, 이경자 교수
- ❷ 행복을 전하는 1,700시간의 봉사시간 - 김유남 씨

20 한남 파워

- ❶ 2016학년도 국책사업 선정
- ❷ 한남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 고위인사 잇단 방문
- ❸ 한남대, 지역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앞장서다

26 입시정보

- ❶ 한눈에 보는 2017학년도 수시 모집
- ❷ 사범대학, 교육부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A등급
- ❸ 잘나가는 기계공학과, 학생들의 대외활동 눈부서

30 멘티, 멘토를 만나다

'성실과 정직' 희망의 공직자 임영호 동문을 만나다

32 한남 뉴스

- ❶ 주요 소식
- ❷ 한남 피플

36 학교 발전기금

38 영화 속의 한남

코리아, 변호인, 세시봉, 그 해 여름, 덕혜옹주, 살인자의 기억법

발행일 2016년 6월
 발행처 한남대학교
 발행인 이덕훈
 편집인 정충영
 취재·글 김대진, 장호진
 제작처 한남대학교 입학홍보처 홍보팀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오정동) www.hannam.ac.kr
 편집디자인·인쇄 (주)두원



개교 60주년 기념 행사

1956년 개교 이후 60년이란 시간 동안 한남대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발전하고 성장했다. 또한 미국 선교사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기초를 세운 한남대의 기독교 정신을 지금도 변함없이 이어가고 있다.

다시 새로운 60년을 향해 비상을 준비하는 한남대학교의 새로운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개교 60주년 기념 감사예배’

“오늘날 한국에는 세계적 수준의 학문과 연구 능력을 갖춘 훌륭한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남대학교와 같은 사명을 가진 대학이 그 가운데 얼마나 있습니까? 한남의 설립자들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그 사명이 여러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명은 60년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4월 20일(수) 정성균선교관에서 열린 ‘한남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감사예배’의 설교는 한남대 구성원들에게 목직함 올림을 주었다.

이날 학교의 초청을 받아 일본에서 방한한 빌 무어(William L. Moore) 선교사는 ‘Remember the Wonderful Works that God has Done’ 이란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우리대학의 기독교 설립정신과 미션을 거듭 강조하였다.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한남대학교를 통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었다.

무어 선교사는 본교 설립 당시 부지 물색과 매입에 기여한 대학설립위원 보이얼(Elmer T. Boyer) 목사의 외손자이며, 본교 성문학과에서 20년간 헬라어와 성서 과목을 가르친 모요한(John V. Moore) 선교사와 도서관 사서로 근무한 보케런(Katherine Moore) 선교사 부부의 아들이다.

‘개교 60주년 사명선언문 선포식’

‘개교 60주년 기념 감사예배’ 다음 날인 4월 21일(목) ‘한남대학교 개교 60주년 사명선언문 선포식’이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

전날 ‘개교 60주년 기념 감사예배’는 60년 동안 한남대학교를 지켜주신 하나님과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경건한 예배의 분위기이었다면, ‘개교 60주년 사명선언문 선포식’은 한남대의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모든 구성원들 앞에서 공표하는 흥분되고 설레는 시간이었다.

신동민 학사부총장이 사명선언문 전문 낭독을 시작으로 송현훈 교무연구처장, 박용서 사무처장, 이상호 총학생회장이 각각 교수·직원·학생 대표로 선언문을 낭독할 때, 행사에 참석한 교수, 직원, 학생 400여 명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함께 참여했다.

사명선언문의 전문은 ‘한남대학교는 진리, 자유, 봉사의 기독교 정신과 학문의 수월성을 바탕으로 창의적 연구와 융복합 교육을 통해 사회정의와 세계평화,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는 내용이며, 교수와 직원, 학생의 실천다짐이 각각 포함되어 있다.

초대 설립위원 후손들에게 감사패 전달

이날 행사에는 한남대 최초의 건물인 '인돈 기념관'을 비롯해 선교사촌 등 캠퍼스의 여러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 故 찰스 데이비스 장로의 아들 닐 데이비스 장로가 축사를 했다. 학교측의 초청으로 방한한 닐 데이비스 장로는 한남대가 60년간 이룬 발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면서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닐 데이비스 장로는 선친에 이어 미국에서 유명 건축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락원 본교 이사장은 故 찰스 데이비스 장로와 파송교회인 미국 사우스 하이랜드 장로교회에 대한 감사패를 닐 데이비스 부부에게 전달했다. 또한 이덕훈 총장은 전날 60주년 감사예배에서 설교한 빌 무어 선교사 부부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개교 60주년 기념 서적 출판기념

우리대학은 개교 60주년을 1년 앞둔 2015년 5월부터 '개교 6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념 서적 출판을 위한 준비를 했다. 총 3종의 기념 서적('60주년 기념 설교집', '선교사 열전', '사진으로 보는 한남 60년사')을 만들기 위해 많은 교수와 직원들이 헌신하였고, 이날 출판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3종의 책자를 천사무엘 교목실장과 최영근 목사, 강구철 교양융합대학장이 각각 이락원 이사장과 이덕훈 총장에게 증정했다.



'풋 프린팅 제막식'

'개교 60주년 사명선언문 선포식'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풋 프린팅 제막식'이 열렸다. 지난 3월 2일 이덕훈 총장의 취임식 때 총장과 교수, 직원, 학생 대표가 함께 했던 풋 프린팅을 '동행-새로운 한남을 위해'라는 제목의 동판으로 제작해 이날 제막했다. 풋 프린팅은 구성원들과 동행하면서 대학 발전을 위해 발로 뛰겠다는 이덕훈 총장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 이날 제막한 풋 프린팅 동판은 대학본관(인돈기념관) 입구에 설치됐다.

'풋 프린팅 제막식'을 마지막으로 '한남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을 위한 모든 행사가 마무리 됐다. 모든 한남대 구성원들은 감사의 6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60주년을 향해 달려갈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이제 한남대학교는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대학을 향한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와의 융합을 통해 중부권 1위, 전국 30위권 대학 진입을 목표로 다시 새롭게 전진할 것이다.

1. 개교 60주년 감사 예배
2. 풋 프린팅 제막식



1. 지역사회 주요기관에 떡 돌리기 행사 2. 교수작품전 개최 3. 미디어영상전공 프로젝트 맵핑

개교 60주년 이모저모

지역사회와 '60주년 감사의 떡' 나눔

이덕훈 총장(앞줄 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처·실장 및 팀장들이 떡 돌리기 출발에 앞서 기념 단체 촬영을 하고 있다.

1956년 개교 이후 지역밀착형 대학을 표방해온 한남대학교는 개교기념일(4월 15일)을 하루 앞두고 대전지역 기관과 복지시설 등에 '개교 60주년 감사의 떡'을 돌리며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먼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이덕훈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은 대전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과 성락원, 오정동주민센터, 중리지구대 등 모두 35개 기관 및 복지시설에 떡을 한 상자씩 직접 전달하며 60년간 한남대를 사랑해준 데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이덕훈 총장은 "대학 설립 이후 지난 60년간 한남대가 성장해온 데는 지역사회의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역발전과 대학발전은 하나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60년'을 향해 한남대는 지역사회와 동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교 60주년 기념 교수작품전'

4월 14일(목)부터 19일(화)까지 조형예술대학 2층 전시관에서 '개교 60주년 기념 교수작품전'이 열렸다. 이번 작품전은 개교 60주년을 맞이해 한남대학교 37명의 교수들이 총 57점의 작품들을 출품했고, 수익금 전액을 대학발전기금으로 기탁하게 된다.

개교 60주년 기념식수

4월 5일 식목일에 이덕훈 총장을 비롯해 처실장, 팀장 및 이상호 총학생회장, 이청 부총학생회장 등 학교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범대학 앞 정원에서 '개교 60주년 기념 식수' 행사가 열렸다.

이날 기념 식수를 한 나무 2그루는 봄철에 꽃이 피는 자목련으로 한남대학교의 교화이기도 하다.

미디어영상전공, 개교60주년 프로젝트 맵핑

한남대학교 멀티미디어학과 미디어영상전공은 4월 12일(화) 저녁 8시30분 교내 상징탑에 개교 60주년 기념영상을 비추는 '프로젝션 맵핑' 행사를 진행했다. 약 10분간 상징탑을 화려하게 수놓은 영상 콘텐츠는 미디어영상전공 소속 '꿈을 여는 창의공작소'에서 제작하고 상영하였다.

프로젝션 맵핑은 어떤 건축물의 표면에 빛으로 이루어진 영상을 투사하여 변화를 주고, 스토리를 전달하는 첨단 영상기술로 한남대학교에서는 처음 시도된 의미 있는 행사였다.

행사를 주관한 미디어영상전공 이은석 교수는 "한남의 60년 역사를 특별하게 전달하고, 개교 6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작업하였다"고 소개했다.

이덕훈 총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개교 60주년을 맞아 한남의 새로운 변화를 상징하는 귀한 행사를 준비해준 멀티미디어학과에 감사하다"며 "한남 구성원 모두 새로운 60년을 향해 도전하자"고 말했다.



휴먼 스토리

한남대학교 캠퍼스에는 60년의 세월동안 학교의 발전을 위해 함께 헌신해온 분들의 흔적과 기념되는 장소를 손쉽게 찾을 수 있다. 60주년 기념 감사 예배와 사명선언문 선포식에서 우리대학은故 모요한(John Moore) 선교사와故 찰스 데이비스 장로(Elder Charles F. Davis, Jr)의 후손을 초청해 감사패를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두 분이 한남대에 남긴 아름다운 족적을 돌아본다.

모요한 선교사

모요한 선교사는 미국 리치몬드 유니언 신학교를 졸업하고 1955년 29세의 나이로 한국에 와서 1991년까지 36년간 부인 보계련 선교사와 함께 전주, 제주, 대전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했다.

모요한 선교사는 초창기 우리대학(당시 대전기독교관) 성문학과에서 19년간 헬라어와 성서과목을 가르쳤고, 부인 보계련 선교사는 우리대학의 초대 도서관장을 맡아서 일했다. 모요한 선교사는 미국으로 돌아가 여생을 보내고 2013년 10월 9일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주 블랙 마운틴에서 소천했다.

모 선교사의 가족은 특별히 한남대와 깊은 인연이 있다. 모요한 선교사의 장인인 보이얼(Elmer T. Boyer) 목사 역시, 본교 대학설립위원으로 설립 당시 부지 물색과 매입에 기여했다.

60주년 행사에서 감사패를 전달받은 모요한 선교사의 아들 빌 무어(William L. Moore) 선교사도 부모님과 함께 본교 선교사촌에서 유소년기를 지내는 등 가족이 3대에 걸쳐 약 100여 년간 한남대와 인연을 맺고 있다.

찰스 데이비스 장로

찰스 데이비스 장로는 미국의 유명 건축가로, 우리 대학 최초의 건물인 대학본관(인돈기념관)을 비롯해 선교사촌 등 설립 초창기 다수의 캠퍼스 건물을 설계한 분이다.

대학본관은 동양과 서양 건축양식이 접목된 아름다운 건물이다. 2층 벽돌 건물이며, 내부도 서양식이지만 지붕은 전통 기와를 얹어 한국의 건축미를 살렸다. 한국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주기 위한 배려였다. 이후 3층 건물로 증축하면서 기와지붕이 철거됐지만, 2010년에 기와를 새로 복원하였다. 붉은 벽돌도 중간 중간에 십자가 문양을 이루고 있다.

또한 종교적 건축학적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선교사촌의 집을 설계하였는데 당시 최초(1955년)에 지어졌던 북측의 3개 동이 2001년 6월 대전시로부터 문화재(문화재자료 제44호)로 지정되어 영구 보존되고 있으며 건축 문화의 해인 1999년에는 '좋은 건축물 40선'에 선교사촌에 있는 인돈학술원이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에 선친을 대신해 학교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아들 닐 데이비스 역시 아버지의 뒤를 이어 미국에서 유명 건축가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한남대는 교내 일부 건물을 인돈기념관(대학본부), 서의필홀(56주년기념관 공연장), 김기수기념관(히스토리 라이브러리 카페) 등으로 명명하고 장학정신을 이어오고 있다.

1. 선친을 대신해 이덕훈 총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는 빌 무어 선교사 부부
2. 모요한 선교사
3. 선친을 대신해 이락원 이사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는 찰스 데이비스 장로의 아들 닐 데이비스
4. 찰스 데이비스 장로

대학설립위원 7인

인돈 William Linton (의장)	조요섭 Joseph Hopper (전주 대표)	유화례 Florence Root (목포 대표)	서의필 John Sommerville (목포 대표)	김기수 Keith Crim (순천 대표)	구바울 Paul Crane (병원 대표)	보이얼 Elmer Boyer (순천 대표)

한남대학교 제 16대 이덕훈 신임 총장을 만나다

선교사가 세운 미션스쿨인 한남대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학생이 주인공이다' 라는 생각으로
'학생 중심의 학교 운영' 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남대학교가 개교 60주년을 맞았습니다. 게다가 총장님께서도 60주년을 맞는 올해 3월 총장에 취임하셔서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한남대는 올해 개교 6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대학을 사랑해주시고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남대는 제 모교입니다. 60년 전 선교사에 의해 3개 학과 82명으로 시작된 한남대가 지금은 15,000명으로 성장한 것을 보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모교 총장으로 취임한 것을 크나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대학들이 구조조정과 학령인구의 감소 등의 현실을 생각할 때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총장직을 수행하시다보면 중요한 일들이 매우 많을 것 같습니다. 총장 업무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수행하신 일들이 무엇이신지요?

총장으로 선출되고 나서 지난 몇 개월이 몇 년 같이 느껴질 정도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선교사가 세운 미션스쿨인 한남대는 하나님 주인이시지만, '학생이 주인공이다' 라는 생각으로 '학생 중심의 학교 운영' 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 기숙사와 학생식당, 동아리실 등 학생들의 생활 현장을 방문하며 학생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편한 점을 직접 듣고 학교 운영과 미래에 대해서도 학생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각종 국제사업과 평가를 준비하느라 교수,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60년, 새로운 한남'의 가치를 내걸고 대학 구성원들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전 구성원이 하나가 되어 개교60주년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60주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60년이란 의미는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60년 역사 새로운 60년 새로운 한남입니다. 국내 30위권을 목표로 새로운 학문과 교육을 넓히려 합니다. 대학경쟁력의 핵심인 학문과 교육은 교수의 경쟁력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교수의 승진제도 개선과 연구년을 상향조정하고 정년보장교수의 연구실적하한제를 도입하여 연구의 질을 높여 연구와 교육으로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학생서비스 혁명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고객(학생)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새로운 60년의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대학들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남대학교도 적극적인 국제교류를 하고 계시죠?

한남대학교는 60년 전 개교 당시부터 외국인 교수들이 영어로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가 강한 대학, 글로벌 대학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에는 국내 최초로 교수 전원을 외국인으로 구성된 영어전용 단과대학인 린튼글로벌칼리지를 설립했습니다. 최근 '린튼글로벌비즈니스스쿨'로 개편해 교육부의 지방대학특성화 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린튼 스쿨 학생들은 케임브리지대학교 같은 해외 유명 대학에서 계절학기 수업도 듣고 있습니다.



현재 46개국, 220여 개 외국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한남대학교 학생 약 200명이 세계 각국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약 500명이 한남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대학과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여 글로벌 대학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도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천 명 유치'를 목표로 세계 많은 대학과 협약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건축도 추진 중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천 명 유치를 달성하면 한남대학교 학생들이 외국을 나가지 않아도 외국을 체험할 수 있는 캠퍼스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도 많은 노력과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요.

대학이 취업하는 곳이나고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이 사회 속에 존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취업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입장이 되어 보면 취업이 얼마나 간절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CEO 총장으로서, 미래의 일자리 수요와 사회 변화 트렌드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취업률을 높이는 일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입니다. 한남대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대전·세종 거점 '대학창조일자리센터'로 지정되었고, 중소기업청의 창업선도대학이기도 합니다. 많은 국비를 지원 받고, 취업 및 창업 지원 시스템을 잘 갖추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낼 것입니다.

전국 대학에서 최초로 '취업·창업채'를 신설하여 이미 진행하고 있는 각 단과대학 취업지원관 제도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제도, 취업 관련 교과목 개설 등을 더욱 효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서 인성교육 또한 중요한 것인데, 대전을 대표하는 대학으로서 어떤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펼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저희 한남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대학입니다. 60

년 전, '선한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님들이 한남대학교를 세우셨습니다. 한남대는 이러한 정신을 6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한남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우리 사회 각 계층에서 '선한 지도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한남대학교 학생들은 2학년 때까지 주 1회 채플에 참여하여 기독교적 인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양 과목을 통해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인성과 건전한 소통의 방식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졸업하기 전까지 72시간 이상을 사회를 위해 봉사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장학금' 제도를 운영하여 한 학기에 130시간 이상을 봉사한 학생들을 격려하여 학생들의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학과마다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상담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 담당 교수님으로부터 지속적인 상담과 멘토링을 받으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처럼 한남대는 채플, 교양과목, 자기개발 과목 등과 사회봉사 제도,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기독교적 영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정직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대전지역 대학으로서 한남대가 지역사회와 함께 하려는 여러 노력들이 돋보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학은 지역의 싱크탱크로서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한남대는 60년 동안 많은 지역인재를 배출했습니다. 사범대학을 중심으로 많은 교사들을 배출했고, 경상대학은 많은 기업가를 배출했습니다. 정치인과 사회지도자들도 한남대 출신들이 많습니다.

한남대는 또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메카인 대덕연구단지에 일찌감치 '대덕밸리 캠퍼스'를 설립해 지역 전략산업인 바이오, 나노 분야 연구와 인력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또한 계룡대, 자운대 등이 있는 국방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남대는 국방융합기술 분야를 특성화해서 교육부의 특성화 사업단에 선정되었고, 이 분야 연구와 전문인력 양성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남대는 우리 지역의 싱크탱크로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구 및 강의 개발 등을 강화할 것입니다. 계약학과, 산학협력 등에 역점을 두고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하는 커리큘럼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남대는 지역주민의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고, 지역기업에 훌륭한 인재를 공급하는 '지역밀착형 대학'이 되고자 합니다. 한남대가 지역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들과의 현장 소통

이덕훈 총장은 취임 이후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한 활동을 진행해 나갔다. 3월 14일 56주년 기념관 중회의실에서는 '총장님과 함께하는 학생임원 도시락 간담회'가 열렸다. 이덕훈 총장을 비롯한 처·실장, 행정팀장 및 학생임원 8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는 약 2시간 동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오후부터는 중리시장을 방문해 환경정화활동을 펼치고 시장에서 물건과 먹거리를 사는 등 전통시장 살리기에 앞장섰다.

또한 이 총장은 도시락간담회 때 나온 학생들의 의견을 점검하기 위해 대덕밸리 캠퍼스 학생식당과 대전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누리홀)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뿐만 아니라 본 캠퍼스 학생식당과 제 2체육관을 방문해 총학생회장 및 학생임원들의 숙원사업 요청사항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후 이 총장은 학생들에게 약속한 대로 학생식당과 기숙사 식당의 메뉴를 개선하고 신기숙사를 비롯해 구기숙사, 체육부 기숙사 등의 생활관에도 학생편의시설을 보충했다.

- 1. 제 16대 총장 이덕훈 박사의 취임식에서 동행을 주제로한 풋 프린팅 퍼포먼스
- 2. 600인분 비빔밥 만들기 이벤트에서 학생과 셀카를 찍고 있는 이덕훈 총장
- 3. 부활절 계란 나누기 행사에 참여한 이덕훈 총장
- 4. 학생식당에서 학생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이덕훈 총장

한남대에 새로운 발자국이 찍히다.

3월 2일 56주년 기념관에서 제 16대 총장 이덕훈 박사의 취임식이 열렸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이 총장을 비롯한 학생, 교수, 직원 대표들이 함께 맨발로 점토 반죽에 발도장을 찍는 풋 프린팅 퍼포먼스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동행'을 주제로 한 이번 퍼포먼스에는 올해 개교 60주년을 맞이한 한남대학교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구성원들과 함께 발로 뛰겠다는 이 총장의 의지가 담겨있다.

천사무엘 교목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취임식은 학교법인 대전기독교학원 이락원 이사장의 총장 임명 선언, 해외자매대학 총장을 비롯한 국내외 인사들의 축하 영상메시지 상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서 강창희 전 국회의원장과 권선택 대전광역시장,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 이성희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총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와 권면사를 했다.





영어영문학과
허근 교수

영어영문학과 허근 교수는 2009년 본교에 부임하기 전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공동으로 진행한 초등영어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스마트폰과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창의인성 교수학습법을 연구해 오고 있다.

허 교수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스마트 러닝과 온라인 강좌에 최적화된 사용자 중심의 강의법 등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대응하고 선도하는 교수학습법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고 밝혔다.

허 교수는 또한 아동영어 학문 분야의 범위를 넓혀서 세계적 흐름과 트렌드에 걸 맞는 현장 중심의 국제화 교육과 영어를 통한 다문화 인성 교육 등에 대한 연구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허 교수는 “아동영어 교육은 잠재력이 많고,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기에 국가와 학교 그리고 학생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수학교육학과 이경자 교수는 박사학위 논문이 2007년 Czech Math, J 학술지에 SCIE 논문으로 등재되었고, 이듬해인 2008년 한남대 교수로 부임했다.

이 교수는 대수학의 가환대수분야를 주전공으로 하여 다양한 대수적구조이론을 퍼지(fuzzy), 소프트(soft), 러프(rough) 이론에 적용하는 연구를 해왔다. 연구년인 작년 11월 한국연구재단에 연구프로젝트가 선정되었고, 3년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교수가 소속된 수학교육과는 최근 교육부의 사범대학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이 교수는 “우리 학과는 2007년도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총 9명의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를 배출했고, 2013년도에는 수석합격자도 나왔다” 며 “본교 사범대학이 A등급을 받는데 수학교육과가 크게 기여했다” 고 말했다.

이 교수는 “무엇보다 교수님들이 제자를 향한 열정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고 덧붙였다.

한편, 한남대 교원업적심사위원회는 매년 전임교원의 최근 3년 연구업적(국제저명학술지 논문 점수와 국내저명학술지 논문 점수 합산)을 종합평가하여 ‘연구업적 우수교원’ 을 선정, 시상하고 있다. 이번 ‘연구업적 우수교원 평가’ 에서 허근 교수는 총 12편(국제 6편, 국내 8편), 이경자 교수는 총 21편(국제 20편, 국내 1편)의 논문을 국내·외 저명학술지에 게재하였다.

2016 연구업적 우수교원 인터뷰

허근 교수
이경자 교수

우리대학 ‘스타교수’ 발굴 등 연구 강화 드라이브 연구실 문에 ‘연구업적 우수교원’ 명패 부착도

한남대가 교수들의 연구 강화를 위해 ‘스타교수’ 발굴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스타교수’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스타교수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스타교수 선정에 앞서 연구업적이 탁월한 교수의 연구실 문에 ‘연구업적 우수교원 명패’ 를 부착하는 행사도 가졌다. 지난 5월 3일 첫 명패가 부착된 곳은 영어영문학과 허근 교수와 수학교육과 이경자 교수의 연구실이다. 이 행사에는 이덕훈 총장과 신동민 학사부총장, 송현훈 교무연구처장 등이 참석해 우수교원을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었다.

연구실 문에 자랑스러운 명패가 부착된 허근 교수와 이경자 교수는 2016년 연구업적 우수교원으로 선정돼 지난달 개교 60주년 행사에서 상을 수상했다. 홍보팀은 두 교수를 직접 만나서 연구 활동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수학교육과
이경자 교수

행복을 전하는 1,700시간의 봉사시간

김유남 씨

(2016년 2월 사회복지학과 졸업)

‘진리, 자유, 봉사’를 교훈으로 삼고 있는 한남대학교는 인성교육의 일환으로써 72시간의 봉사활동 졸업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단지 72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수십배, 수백배의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도 있다. 올해 2월 학위수여식에서 ‘한남봉사상’을 수상한 김유남(사회복지 07)씨는 재학 중 국내외에서 총 1,700시간의 봉사활동을 했다.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김유남 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1,700시간이라는 많은 봉사활동을 하셨는데, 어떻게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고등학교 때 잠시 방황을 하는 동안 ‘쉼터’를 알게 됐어요. 그 곳에서 사회복지사들의 모습을 보고 의미 있는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로를 사회복지로 잡게 됐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책을 써서 글을 읽는 독자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계기를 통해서 사회복지가 좀 더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 뒤로 한남대 사회복지학과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궁금합니다.

2014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새마을세계화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프로젝트에 참가해 스리랑카 피티에가마에서 학교 교육 개선사업을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당시 통학로가 포장 안 돼 있다 보니 비오는 날에는 아이들의 옷이 쉽게 더러워지고 자주 넘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포장하면 아이들이 통학하기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이후 마을 분들을 설득해서 같이 길을 포장하는 작업을 했어요. 이 작업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일이었는데 감사하게도 마을 분들이 제 이름을 따서 길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뜻 깊은 일이었습니다.

근황이 궁금합니다. 졸업 후에는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취업하기 전에 하고 싶은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어서 인문학관련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KOICA의 지원을 받아서 책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봉사활동을 가서 느꼈던 좋은 경험들과 느낌들을 공유하고자 수기형식으로 작업하고 있죠. 평소에 글도 써보고 싶었고 언제 이런 기회가 생길까 싶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우선은 준비하고 있는 책 집필을 잘 마무리해서 출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현장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문제 중의 하나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로자들의 행복을 높여 줄 수 있는 복지활동을 찾아보고 있고 취업도 이것과 관련해서 할 생각입니다.

봉사활동을 아직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봉사활동을 다녀온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가 오히려 배우고 오는 것 같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들 말처럼 봉사활동은 또 다른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이라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느끼고 배우는 거죠. 여러분도 봉사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렵다면 쉬운 봉사활동 먼저 찾아서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1. 스리랑카 주민회의에서 마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의견을 듣고 있는 김유남 씨
2, 3. 스리랑카 학교 환경개선 활동
4. 네팔 봉사활동



2016학년도 국책사업 선정

중소기업청의 '연구마을 주관대학' 선정

한남대학교는 지난 3월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2016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연구마을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어 2년간 최대 44억을 지원받는다.

연구마을 사업은 우수한 연구기반을 갖춘 대학과 연구기관 내에 중소기업을 집적화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남대학교를 비롯해 7개 대학이 주관기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한남대학교는 '한남 창의·융합 BINT 산업생태계 선도 연구마을' 구축 및 활성화를 목표로 BINT(바이오·IT·나노 기술) 분야 22개 과제를 배정받아 관련 중소기업 22곳을 교내에 입주시키고, 기업 당 최대 1억 원씩 지원하며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성인하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역량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우리 대학의 우수한 인적, 물적 R&D 자원과 연계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남대학교 대덕밸리캠퍼스 전경



IPP형 일학습병행제 운영기관 선정

한남대학교가 2월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형 일·학습병행제' 운영기관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한남대학교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매년 10억 원씩 총 50억 원을 지원받는다.

한남대는 IPP를 통한 지역산업 기반 실무인력 양성을 위해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IPP 교육과정 개발, NCS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확보, IPP 센터 조직 구축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 우수기업을 중심으로 IPP 참여기업 협약을 맺고 재학생들의 장기 현장실습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학협력단은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 선정으로 한남대는 지역 산업을 뒷받침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과 함께 동반 발전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IPP(장기현장실습제)는 3~4학년 학생들이 전공과 관련된 기업에서 장기간(4개월 이상)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교-대학 연계 R&E 과학프로그램

한남대 산학협력단은 5월 30일 대전시교육청에서 공모한 '2016년 고교-대학 연계 R&E (Research & Education) 과학프로그램' 책임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 사업은 한남대를 비롯한 대전대, 선문대 등 총 3개 대학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고교-대학 연계 R&E 과학프로그램'은 대학 및 연구기관의 물적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고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부족한 R&E(과제연구) 과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고등학생들의 과학 연구능력을 신장하고 과학적 마인드 제고 및 이공계 진로 유도를 목표로 기획된 사업이다.

한남대, 미래창조과학부 대학·연합 TMC 사업 선정

한남대학교가 5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원하는 '대학 TLO(기술이전전담조직) 및 지주회사 등을 연계·통합한 대학 TMC(Technology Management Center)사업'에 선정되어 향후 3년간 약 4억 5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한남대는 충남대, 한밭대, 한국기술교육대, 선문대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연합 TMC' 사업단으로 선정됐다.

대학 TMC 사업은 대학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해 통합적 기술경영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분산되어 있는 대학 내 기술사업화 조직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IP(특허)·관리, 기술이전·창업,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다.

성인하 한남대 산학협력단 단장 및 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는 "대학의 보유기술의 사업화가 산학협력의 핵심역량으로서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인데, 한남대는 2013년 대전·충청권 최초로 대학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매출이 신장되고 있는 우수 자회사들을 확보하고 있는 기술사업화의 강자로서 앞으로 TMC사업을 통해 더욱 공격적으로 기술사업화를 통한 기업지원과 수익창출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학협력단,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주관 기관 선정

한남대 산학협력단(단장 성인하)은 3월 23일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매년 3억 원을 지원받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공인(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의 업종별 맞춤형 특화사업 제공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의 소공인 밀집지역의 신규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9곳을 선정하였다.

대전에서 신규로 선정된 한남대 산학협력단은 대덕구 오정동 지역의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을 중심으로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한다. 1년마다 평가를 거쳐 사업을 지속하게 된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 제품 판매촉진, 기술가치 향상, 소공인 특화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도심형 소공인 제조업을 부활시킬 수 있는 신개념 산업생태계 조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남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 고위인사 잇단 방문

학생들과 간담회 갖고 취업지원 약속



대전·세종 거점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한남대가 유치한 이후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방문하며 청년 취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각각 본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학생들과 청년 취업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유 부총리는 3월 7일 한남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서 대학생 등 10여 명과 '청년고용간담회'를 갖고 학생들의 취업 및 창업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의 정책 및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본교에 설치, 운영 중인 '대전·세종 거점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현장 방문해 현황을 보고 받았다.

앞서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1월 14일 본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방문하고, 대학 관계자 및 대학생들과 청년 취업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학생, 교직원, 취업컨설턴트 등은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청년취업 문제에 대한 의견을 서로 공유했다. 또한 직업 체험 기회 및 창업 지원 확대 등의 건의사항을 고 차관에게 전달하며 사회적 난제인 청년 취업과 구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편 한남대학교는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의 대학창조일자리센터사업에 선정되며, 5년 6개월간 총 27억5,000만 원(연 5억 원)을 지원받아 다양한 청년 취·창업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취·창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청년고용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한남대는 앞으로 저학년 때부터 개인별 적성과 전공을 고려한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청년 취업의 미스매치(불일치) 현상을 극복하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남대는
직업 체험 기회와
취업·창업지원 확대 사업으로
청년 취업의 미스매치 현상을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1. 한남대 대학 관계자 및 대학생들과 청년 취업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유일호 부총리
2. 왼쪽부터 유일호 경제부총리, 윤천석 대학창조일자리센터장, 권선택 대전시장, 이덕훈 한남대 총장
3. 한남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방문한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가운데)

한남대, 지역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앞장서다

주력산업마케팅지원사업단, 홍콩 전시회 1,000만 달러 수출상담 지원

한남대 산학협력단 산하 주력산업마케팅지원사업단(단장 신윤식)은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홍콩에서 열린 '2016 글로벌 소시스 컨슈머 전자전시회'에서 대전지역 기업들의 마케팅을 지원해 1,000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두었다.

주력산업마케팅지원사업단은 홍콩 아시아 월드 엑스포 전시장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창신정보통신, 님버스, 이노텍즈, 솔미테크 등 4개 업체에게 프리미엄 독립부스를 제공하고 통역, 컨설팅, 바이어 초청 등 마케팅 서비스 일체를 지원한 결과 140여 명의 바이어 발굴과 700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올렸다.

또한 별도의 바이어 상담장을 전시장 내에 마련해 바렙시스템, 맥스웨이브, 한경아이넷, 시리우스 등 4개사 제품을 시연하는 홍보 활동도 진행했다. 민간수출상사와 공동으로 바이어 교섭, 초청장 발송 등 사전 마케팅을 진행하고 현장에서 4개사 제품의 수출 상담을 대행한 결과 90여 명의 바이어 발굴과 300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올렸다.

신윤식 사업단장은 "한국은 원천기술이 우수하며 응용력이 뛰어난 제품이 많지만 가격경쟁력이 부족하므로 중국 선진지역의 우수한 IT제조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현지 생산했을 때 가격 및 디자인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이러한 '글로벌 협업 플랫폼'을 만들어 양쪽의 장점을 융합한 신개념 수출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GTEP사업단, 베트남 박람회 40억 원 수출상담 및 계약 성과

한남대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GTEP·단장 이제현)은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에서 열린 '제26회 베트남 하노이 종합박람회'에 참여해 지역업체 해외 마케팅을 지원해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박람회에서 GTEP사업단은 (주)바이오뉴트리젠(대표 복혜성)과 (주)벨텍(대표 임환정) 등 8개 기업과 함께 참석해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했다.

GTEP사업단 소속 한남대 학생들은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화장품 유통회사, 건강식품제조회사, 발전설비운영업체, 속옷유통업체, 광고기획업체 등 3,000여 개 회사를 파악해 참여 업체들의 박람회 부스 초청 메일을 발송했다.

이 가운데 화장품 유통 바이어 5개사, 산업설비제조회사 5개사, 한방병원 운영회사 1개사 등이 부스를 직접 방문했으며, 그 결과 총 40억 원의 수출상담 및 계약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박람회에 함께 참여했던 (주)바이오뉴트리젠은 베트남 현지 기업 2곳과 한방의약품 원료를 공급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주)벨텍은 암모니아질소를 생산하는 베트남 국영기업에게 가스용 강압밸브를 수출하기로 약정했다.

한편 (주)벨텍 임환정 대표는 한남대 GTEP사업단 소속 학생들의 능력을 높게 평가해 3명을 회사에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1. 지역기업의 홍콩 전자전시회 1천만 달러 수출 상담 지원
2. 베트남 박람회에 참석한 본교 GTEP 사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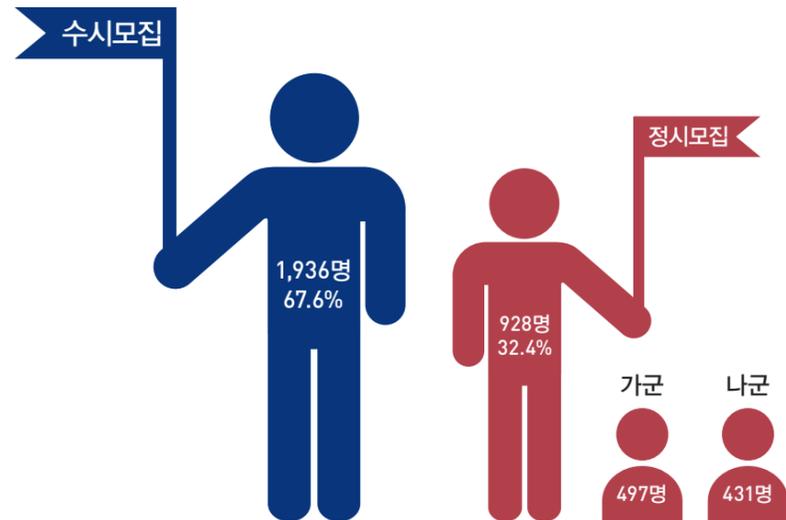


한눈에 보는 2017학년도 수시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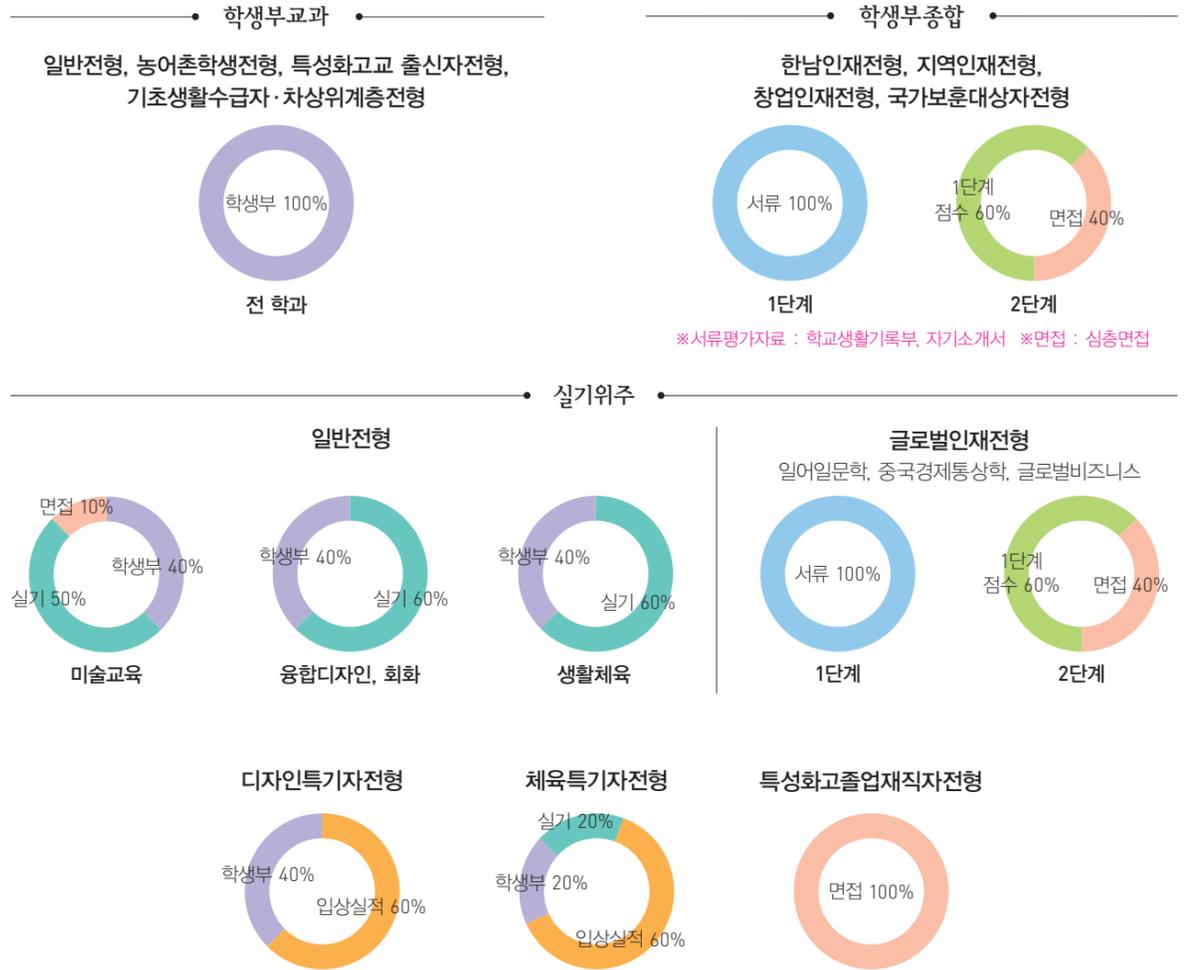
모집기간

- 수시모집 원서접수
2016.09.13(화) 09:00 ~ 09.21(수) 19:00
- 서류제출 마감
2016.09.13(화) 09:00 ~ 09.23(금) 21:00
- 1단계 합격자 발표 [학생부종합전형, 실기위주전형(글로벌인재전형)]
2016.11.11(금) 17:00 이후
- 최종 합격자 발표
 - 학생부교과전형, 실기위주전형(글로벌인재전형 제외) : 2016.10.21(금) 17:00 이후
 - 학생부종합전형, 실기위주전형(글로벌인재전형) : 2016.12.14(수) 17:00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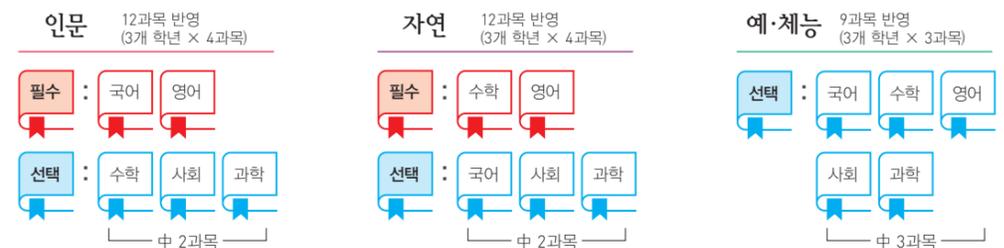
모집인원



전형 방법



학생부 반영 방법



- 교과반영 방법 학년별로 1개 반영교과에서 성적이 가장 좋은 1개 과목만 선택하여 반영
- 학년별 반영 비율 1학년: 30%, 2학년: 30%, 3학년: 40%

사범대학, 교육부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A등급



대학소개

진리·자유·봉사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폭넓은 교양과 전문 지식을 연구함으로써, 교육 발전을 위하여 일선 교육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하고 사명감 있는 중등학교 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식산업 발전이 중심이 되는 미래사회에서 참 교육을 실현하며,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범대학은 중부권 최고의 사범대학을 목표로 하여, 지속적인 자체평가와 연구를 통하여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서 고도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본교 사범대학(학장 윤교찬)이 3월 22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5년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 한남대 사범대학은 평가 대상인 전국 45개 사범대학 가운데 서울대, 고려대 등과 함께 A등급을 받았다.

A등급을 받은 사범대학은 전국에서 16곳이며, 대전·충청지역에서는 한남대와 충남대, 공주대 등 3곳이 A등급에 포함되었다. B등급은 23곳, C등급 5곳, D등급 1곳 등이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곳은 정원의 30%, D등급은 50%를 감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의 질 관리를 위해 1998년부터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이번 4주기 평가는 ▲전임교원확보율 ▲교원임용률 ▲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연구실적 등 20여 개 지표를 평가했다.

한편 본교 사범대학은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교육학과, 역사교육과,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 6개 학과를 두고 있으며, 201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25명의 합격자를 배출했고 영어, 수학 등의 과목에서 수석합격자들을 다수 배출하고 있다.

잘나가는 기계공학과, 학생들의 대외활동 눈부서



학과소개

모든 산업분야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국가경제의 기본 분야로서, 타 공학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고도화된 기술집약적 첨단 산업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류 문명의 혜택, 즉 자동차, 항공기, 선박, 고속철도, 그리고 반도체와 휴대전화, 컴퓨터와 같은 정보기기 등도 기계공학의 기술을 통하여 설계, 생산된 것이다. 21세기형 지식정보화 기계공학으로의 발전을 위해 기계공학전공에서는 전자공학 및 IT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최신 설계기술 능력과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설계능력을 갖춘 기술인력의 양성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공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학과, 기계공학과를 소개한다. 한남대 기계공학과는 특히 학생들의 대외활동 수상실적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다. 작년 12월 경주에서 열린 '융합 신기술 캠프 & 즐기는 디자인 프로젝트 대회'에서 대상과 금상, 은상, 동상, 크리에이티브상, 이노베이션상을 휩쓸었다. 또한 최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 1회 충청 아이디어 빅리그'에서도 기계공학과 팀이 각각 장려상과 특별상을 수상했다.

제 20회 국제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BAJA SAE KOREA'에서도 기계공학과 DYNAMIC팀이 최우수 디자인상을 받아 타대학의 부러움을 샀다. 자작자동차대회에 참여했던 박평우 학생은 "어려움이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대회를 치렀으므로 많은 발전을 경험했다"며 "강의실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큰 배움을 얻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처럼 학생들의 연이은 수상으로 기계공학과와 우수성은 대외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1997년 설립된 한남대 기계공학과는 '전인적 변화, 미래의 엔진'이라는 교육방향의 슬로건을 표명하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최신 설계능력을 갖춘 기술인력의 양성에 최우선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2006년에는 산업계의 요구 및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공학도 양성을 목적으로 공학교육인증제도를 도입했다.

더불어 인근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위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과의 산학연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국 안휘과학기술대학과 2+2 복수학위 과정도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률도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성실과 정직’ 희망의 공직자 임영호 동문을 만나다

안녕하세요. 감사님은 다양한 정치 경험과 이력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은 경험 또는 직책이 무엇인가요?

대전시 동구청장직을 맡았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네요. 처음 구청장직을 맡고 낙후된 환경의 동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정책을 결정 하는데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하려고 신중을 기했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들이 차근차근 쌓이고 사람들이 살기 좋아지는 모습을 보게 되니 뿌듯했습니다.

멘토 임영호

학력 및 경력

- 한남대 경영학과 졸업
- 한남대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 제 25회 행정고시 합격
- 관선, 민선(2,3기) 동구청장
- 제 18대 국회의원(대전 동구)
- 한남대 행정복지대학원 겸임교수

현재

- 코레일 상임감사위원
- 한남대학교 대학평의원

공직자로서 가져야할 태도와 마음가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 시험은 누구나 치를 수 있지만 공무원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항상 공익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의원님께서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행정고시를 합격하신 걸로 아는데요. 행정고시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가진 이상을 세상에 펼쳐 보이고 싶었습니다. 국가와 공익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9급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지만 군대에 가서도 공부의 끈을 놓지 않았고 제대 후 7급 공무원 시험 최종합격과 행정고시 1차 합격을 했습니다. 이후 2차 행정고시를 준비 하면서 한남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해 학업과 고시공부를 병행했습니다. 그렇게 고시공부를 시작한지 약 1년 10개월 만에 합격했습니다.

당시에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공부는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을 추천해요. 공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밀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합니다. 독에 물을 부을 때 꾸준히 조금씩 부으면 가득차지 못하지만, 집중적으로 많이 물을 붓는다면 잠깐 물이 가득 차 넘치는 순간이 오는데 그 때 시험에 합격하는 겁니다. 이처럼 수험 공부는 기간을 정해놓고 최대한 단기간에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한권의 책을 10번 이상 반복해서 보게 되니, 전체적인 시야를 가지고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힘이 생겨 확실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9급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커지고 있고,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시험 공부를 시작하려는 사람까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고 취직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대학진학을 포기하면서

멘티 박정민

행정 4학년



까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려는 요즘 젊은이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자신의 가치를 너무 한정 짓고 다른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저는 대학을 나온 사람과 나오지 않은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세상을 바라는 눈과 관점을 배우고 다양한 경험과 배움을 통해 성숙한 인간을 배양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수험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가져야할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생활자체를 단순화 시키는 것이 좋아요. 시험공부는 집중이 중요하기에 이를 방해하는 주변 요소들을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친구들과도 연락을 자제하고, 술자리도 줄이고, 연애도 가급적 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기왕에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단시간에 승부를 보겠다는 마음으로 몰두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로움도 즐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에 꿈을 갖고 있는 동문 후배와 한남대학교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성실과 정직 그리고 희망이란 단어를 좋아해요.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공무원시험은 기간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한다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동문후배 여러분도 공직에 꿈을 가지고 있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한남대학교를 빛내주길 바래요.

주요 소식



한남대, 강창희 전 국회의장 석좌교수 임용

한남대는 5월 31일 대학본관 대회의실에서 강창희 전 국회의장에게 석좌교수 임용장을 전달했다. 강 전 국회의장은 앞으로 한남대에서 오랜 정치 및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 활동을 하면서 학부 및 대학원에서 특강도 진행할 예정이다. 강 전 의장은 "우리나라에서 다른 분야는 재교육이 활발한데 정치권만은 예외적인 것 같다"라며 "일본 마쓰시다 정경숙을 여러 번 방문하면서 은퇴 후 이런 교육 활동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한남대에서 후학들을 지도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 전 의장은 "37년 만에 정치를 졸업했는데, 그동안 국가와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묵묵히 봉사하면서 국가와 지역사회, 한남대의 발전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덕훈 한남대 총장은 "개교60주년을 맞은 올해 6선 의원이며 국회의장을 역임한 강 전 의장을 한남대의 제1호 석좌교수로 임용해 기쁘다"며 "강 석좌교수께서 풍부한 경륜과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한 지혜를 후학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고, 대학 발전에 기여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강 전 국회의장은 대전고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으며 경남대 명예정치학 박사, 카이스트 명예과학기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3년 11대 전국구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제12·14·15·16·19대 국회의원을 지낸 6선 의원이며, 19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했다. 또한 육군대학 교수,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부 장관 등을 역임해 대학 교육 및 과학기술 연구개발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다.



1. 동티모르에 기증한 컴퓨터로 학생들의 꿈 자라

한남대가 동티모르에 기증한 컴퓨터가 희망을 싹을 틔우고 있다. 동티모르 이대훈 선교사는 우리 대학이 보내준 컴퓨터 6대를 '다우라따 학교'에 설치해 5월부터 학생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시작했다고 전해주었다. 이 선교사는 "산골마을에서 학교 마치고 난 후 집에 가지 않고 컴퓨터와 노는 아이들이 예쁘다."고 말했다.



2. 국어교육과, 무역학과 스승의 날에 거꾸로 제자들에게 장학금 전달

국어교육과와 무역학과 교수들이 스승의 날을 기념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화제다. 국어교육과(학과장 정민주) 교수들은 5월 13일 사범대학 심포지엄홀에서 열린 스승의 날 행사에서 윤다영(4학년) 학생 등 13명에게 총 674만 원의 '사제동행장학금'을 전달했다. 국어교육과 교수들은 2005년부터 12년째 월급의 일부를 모아서 해마다 약 1,000만 원의 장학금을 마련해 스승의 날(1학기)과 한글날(2학기)에 각각 500만 원 정도씩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한글날 장학금 전달식에는 졸업동문들도 참여해 후배들의 장학금을 보태주고 있다. 또한 무역학과 교수 6명은 5월 19일 스승의 날 행사에서 총 18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총 720만 원을 전달했다. 교수 6명은 매달 월급의 10만 원씩 모아 2012년부터 5년째 학업성적이 좋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3. '한남사랑자율봉사단', '대학 캠퍼스폴리스' 발대식 가져

한남대학교는 5월 12일 사범대학 잔디밭에서 '한남사랑자율봉사단' 및 '대학 캠퍼스폴리스' 발대식이 열렸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캠퍼스를 만들고 안전하고 평온한 대학 문화 조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56명의 학생들은 캠퍼스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덕훈 총장 앞에서 선서문을 읽었다.

'한남사랑자율봉사단'은 총 36명의 학생이 9개 조로 나뉘어 자신이 속한 단과대학 구역을 돌면서 캠퍼스 주변 정화활동과 학생들의 불편사항 등을 학생의 눈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선다.

'대학 캠퍼스폴리스'는 대전 대덕경찰서와 협조 아래 본교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캠퍼스 및 학교 주변의 범죄예방 순찰활동을 한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캠퍼스를 만들고 안전하고 평온한 대학 문화 조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56명의 학생들은 캠퍼스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덕훈 총장 앞에서 선서문을 읽었다. 이덕훈 총장은 격려사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학생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4. 본교 컨벤션경영학과, 린튼 글로벌 비즈니스 스쿨, 동아일보 HOT 100 명품학과에 선정

동아일보사에서 최근 출간한 '원하는 미래가 한눈에 보이는 학과 100'이란 책에서 컨벤션호텔경영학과와 린튼글로벌비즈니스 스쿨(이하 린튼스쿨)이 전국의 명품학과 HOT 100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컨벤션호텔경영학과는 2006년 대전총청관에서 최초로 컨벤션전공으로 신설되어 컨벤션·전시산업, 호텔·외식산업, 항공·관광산업분야에 적합한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특히 사회요구형 취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국내외 인턴십과 산학연계 현장실습 등 실무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또한 린튼스쿨은 2005년 국내 최초로 교수 전원을 외국인으로 구성된 영어 전용 특성화 단과대학으로 게임브리지대학 포함 해외 유명 대학과 계절학기 연수, 해외인턴 기회 제공 등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글로벌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5. 탁구부, 대학탁구연맹전 남녀복식 우승 기쁨

한남대 탁구부(감독 송강석)가 제34회 한국대학탁구연맹전에서 남녀 복식 동반우승을 비롯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충남 금산종합체육관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탁구부는 남자 복식(임찬환, 한정현) 우승, 여자복식(김다혜, 천정아) 우승으로 복식을 휩쓸었다. 여자복식에서 우승한 천정아 선수는 개인 단식에서도 3위를 차지했다. 한남대는 이 같은 선수들의 활약으로 단체전에서 남녀 모두 3위에 올랐다.

한남대는 2012년 런던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썩신' 주세혁 선수를 배출한 탁구 명문이다.



6. 본교 레슬링부, 전국대회 금1, 은3, 동1 획득

한남대 레슬링부(감독 강지훈)는 4월 4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폐막한 제34회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남자 대학부 자유형 금메달을 비롯해 총 5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이 대회에서 한대길 선수가 대학부 자유형 65kg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한 박지환(대학부 자유형 70kg), 손세련(여자 일반부 48kg), 이지선(여자 일반부 58kg) 선수 등 3명이 은메달을 획득했다. 양경엽 선수는 대학부 자유형 57kg에서 동메달을 땀다. 한남대는 이 같은 선수들의 선전으로 남자 대학부 자유형 단체 종합 3위를 차지했다.





7. 건축공학전공, 건축학회 경진대회에서 대상, 금상 수상

건축공학전공 학생들이 4월 2일 건양대에서 개최된 대전·세종·충남 건축학회 경진대회에서 대상과 금상을 수상했다. 구조분야, 시공 및 건설관리 분야, 도시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건축역사 분야 등 4개 부문에 총 16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건축공학전공 김대중, 김태홍, 황준환 팀이 구조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또한, 같은 학과 안치성, 신민철, 조권희, 성예은 학생 팀이 시공 및 건설관리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경진대회 후 개최된 2016 대전·세종·충남 건축학회 총회에서 장철기 교수는 창의적인 학술연구와 저작을 바탕으로 학술분야 진작의 공적을 인정받아 학술상을 수상했다.



8. 건설시스템공학과, 한국건설자원협회장상 수상

건축·토목공학과(건설시스템공학과) 4학년 김이슬, 고유라 학생이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 학생부 디지털 E-Poster 경진대회'에서 한국건설자원협회장상을 수상했다.



9. 비즈니스통계학과, 글로벌경영학과 '대학(원)생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

비즈니스통계학과(조성재, 이지은, 임도균 학생)와 글로벌경영학과(서동길 학생) 학생들이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부산 신라대학교에서 열린 'ICT시대의 ICT융합과 정보보호 관련 대학(원)생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통합 재난 관리 시스템을 통한 우리나라 안전확보"란 주제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10. 베트남 호찌민 지역 대학과 복수학위 협정 체결

한남대 대외협력처는 4월 13일부터 19일까지 베트남 지역 자매대학 및 기관을 방문하여 복수학위 협정을 체결하는 등 베트남 지역 진출에 박차를 가했다.

11. 총학생회 활동

제 59대 총학생회의 발자취가 올해 유독 도드라진다. 이상호 총학생회장(경영학과 4)은 3월 14일 '총장님과 함께하는 학생임원 도시락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덕훈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50여 명과 함께 대덕구 중리동에 위치한 중리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중리시장에서 이 총장과 학생임원들은 환경정화활동 및 물건과 먹거리를 사며 전통시장 살리기에 앞장섰다. 뿐만 아니라 개교 60주년을 맞이해 다양한 행사도 진행됐다. 4월 10일에는 CGV영화관 3개관을 빌려 영화 '귀향'을 단체 관람하는 무비 데이를 개최했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올해가 개교 60주년의 역사성 깊은 해인만큼 의미 있는 행사를 고민하다가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역사를 정확히 알고자 <귀향> 단체관람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월 10일부터 3일간 진행된 대동제에서는 600인분 비빔밥행사를 진행해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나누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축제 수익금은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한남 피플



1 설성수 교수, 과학기술훈장 응비장 수상

경제학과 설성수 교수가 4월 21일 제49회 과학의 날과 제61회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서울 KIST에서 열린 2016년 과학기술진흥유공자 포상에서 과학기술훈장 응비장을 수상했다.

4 김종필 교수, 제20회 가톨릭 미술상 조각부문 본상 수상

미술교육과 김종필 교수가 2월 1일 제20회 가톨릭 미술상 조각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2 윤진환 교수, 한국운동생리학회 회장 선출

생활체육학과 윤진환 교수가 4월 2일 한국운동생리학회 차기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회장 임기는 2017년 1월부터 2년이다.

5 신영진 교수, 공군 역사자문위원 위촉

회화과 신영진 교수가 5월 18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공군역사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신 교수는 공군의 역사 기록에 필요한 미술관련 작업을 진행한다.

3 강병주 교수, 세계과학도시연합(WTA) 사무총장 위촉

도시부동산학과 강병주 교수가 3월 8일 세계과학도시연합(WTA, World Technopolis Associatin) 사무총장에 위촉됐다.

6 이경희 명예교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선임

법과대학 이경희 명예교수가 5월 13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0대 이사장에 선임됐다.

7 임춘식 명예교수, 전국노인단체연합회 회장 선출

임춘식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5월 21일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제11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여러분의 땀과 정성이 깃든 귀한 발전기금은 한남대학교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기독교 명문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LIG넥스원 장학기금 1억 원 기탁



LIG넥스원(대표 이호규)이 4월 6일 한남대에 장학기금 1억 원을 기탁했다. 장학금 전달식에서 15명의 학생에게 장학증서가 수여됐다. (누적금액 3억 원)

정길영 길산그룹 회장 학교발전기금 1억 원 기탁

정길영 길산그룹 회장이 3월 17일 한남대에 발전기금 1억 원을 기탁했다. (누적금액 2억 원)

본교 이락원 이사장 학교발전기금 1천만 원 쾌척



본교 재단인 학교법인 대전기독교학원 이사장인 이사장이 3월 24일 발전기금 1천만 원을 학교에 기탁했다.

새로남교회 장학금 2천만 원 기탁

대전 새로남교회(담임 오정호 목사)가 5월 18일 장학금 2천만 원을 기탁했다. (누적금액 8천 2백만 원)

(주)두원 발전기금 1천만 원 기탁

(주)두원 이성규 대표이사가 4월 14일 대학발전기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누적금액 5천만 원)

한남언론인회 장학금 500만 원 기탁

학부 및 대학원 동문언론인 80여 명으로 구성된 '한남언론인회'(회장 광영지 · KBS대 전총국 심의위원)가 장학기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이 장학금은 언론계 진출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누적금액 1천만 원)

기부자를 위한 특별한 혜택과 권리

본교에서 주관하는 각종 문화행사 및 학교행사에 우선적으로 초청합니다.

- 기금의 기여도와 기부하신 분의 의사에 따라 건물 또는 건물 내 특정 공간의 명칭을 명명하실 수 있습니다.
- 기부자 명단은 소식지,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에 공지합니다.
- 출연하신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 소득세 및 법인 세제혜택을 위하여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발전기금 참여방법

- 방문납부**
학교에 직접 방문하셔서 발전기금을 기탁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본관 1층에 위치한 대외협력팀을 방문하여 주십시오.
- 급여공제**
본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기부 하실 수 있습니다.
대외협력팀 (Tel. 042-629-7502~3, 8099)으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 무통장입금**
발전기금 모금을 위해 개설한 한남대학교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보내는 사람'란에 본인의 이름을 적어 주시고 전화로 입금내용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710401-00-002814 / 예금주 한남대학교]

나눔의 실천, 여러분의 기부에 감사합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기부로 나누는 삶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대학발전기금은 큰 액수의 돈을 기부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한남대학교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2015. 11. 14 ~ 2016. 05. 13

성명	기탁 및 약정액	성명	기탁 및 약정액	성명	기탁 및 약정액
(주)두원	10,000,000	박병규	1,000,000	이재현	600,000
(주)이가총합건축사	2,000,000	박병화	1,000,000	이종석	5,336,000
(주)장벽종합건설	3,000,000	박선희	300,000	이주섭	360,000
(주)휴먼에듀	1,000,000	박성원	300,000	이준희	100,000
강봉수	300,000	박성하	1,000,000	이진의	300,000
강철신	300,000	박영애	500,000	이진호	2,500,000
곽영지	500,000	박우전	420,000	이한기	1,000,000
광주시민프로축구단	8,100,000	박해평	100,000	이희영	300,000
구강희(코리아나항공)	1,846,700	박희진	600,000	임원철	298,380
국민은행 용전동지점	250,000,000	백선일	100,000	임천석	300,000
권세혁	1,600,000	변상내	298,380	잉글리쉬플러스(김호식)	3,650,000
권혁필	300,000	변상형	300,000	장광식	1,000,000
길산에스테이트(주)	200,000,000	사희민	100,000	장수	300,000
김건주	140,000	서영성	300,000	장수덕	2,500,000
김경자	300,000	서영숙	600,000	정경두	500,000
김경태	58,380	성인하	300,000	정규진	1,000,000
김길숙(브레인하우스)	1,350,000	세종빙과(김종욱)	300,000	정재완	600,000
김명준	3,500,000	소우영	420,000	정종영	2,500,000
김미종	300,000	손대락	300,000	정홍진	200,000
김민정	500,000	손승희	500,000	조남춘	900,000
김석모	100,000	송희석	2,500,000	조만형	100,000
김석수	498,000	신동호	865,000	조재홍	300,000
김승준	250,000	신한동	600,000	조현천	1,000,000
김연철	89,400	심우건	300,000	진현웅	2,500,000
김영근	1,000,000	양명숙	500,000	차태병	500,000
김영식	1,000,000	에스피이 한국분회	1,000,000	청운엔지니어링	1,000,000
김영태	300,000	엘케이랩테크	1,000,000	최목화	500,000
김은혜	499,800	오대원	2,500,000	최병만	1,000,000
김정미	10,000	유영돈	100,000	최성규	200,000
김제호	1,000,000	유혜숙	570,000	최영근	1,200,000
김진호	300,000	윤성국	100,000	최용관	2,000,000
김철준	100,000	윤승현	1,000,000	최의인	420,000
김태규	1,000,000	윤천석	300,000	최장우	600,000
김형태	800,000	윤희진	100,000	캠임브리지	700,000
김혜숙	600,000	은웅	600,000	키다리영어	2,505,630
김홍기	5,300,000	이강수	420,000	학군단(52기)	2,547,890
김훈	100,000	이계천	300,000	학군단(53기)	2,869,520
나중해	500,000	이규식	600,000	학군단(54기)	622,120
남수현	30,000	이만희	420,000	한기문	600,000
남중희	300,000	이미래	230,000	한남대신탁	50,000,000
눈빛안과	7,000,000	이상구	420,000	한남대학교 체육부	4,876,521
대전성남교회	400,000	이승철	212,700	한남하이텍	8,112,000
류석	60,000	이용택	300,000	한학진	1,000,000
민선기	150,000	이은중	500,000	함현석	220,000
민원기	2,500,000	이익훈	100,000	현영석	2,500,000
박근태	1,000,000	이인숙	300,000	황요성	1,000,000
박길철	600,000	이진중	4,777,200	황준선	10,000
박동일	2,100,000	이장순	300,000	황진영	2,500,000
박문식	300,000	이재광	420,000	황철호	300,000
		이정섭	460,000	합계금액	659,443,621

영화 속의 한남

한남대학교의 아름다운 교정 속으로 - 한남대학교에서 촬영한 영화들

